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일본어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ません」과 「～ないです」을 중심으로—

김 영 민**

erumu@hanmail.net

〈 目 次 〉

1. 들어가기	3.2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특성
2. 선행연구	3.2.1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차이점
2.1 다노무라(1994)	3.2.2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
2.2 고바야시(2005)	3.2.3 부정의 주변을 나타내는 표현
3.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일본어교육과의 관계	4. 나가기
3.1 일본어교재분석 및 문제점	
3.1.1 일본어교재 분석	
3.1.2 일본어교재의 문제점	

Key word : 「～ません」(~masen), 「～ないです」(~naidesu), 否定表現(negative expression), 多様性(deversity), 日本語教育(Japanese education)

1. 들어가기

일반적으로 현대 일본어의 부정문은 술어에 부정사 「ない」의 부가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면, 「これは本だ」에 대한 「これは本ではない」, 「おいしい」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6748)

** 嘉泉大學校 日本語文學科 講師, 日本語學

에 대한 「おいしくない」, 「にぎやかだ」에 대한 「にぎやかではない」, 「食べる」에 대한 「食べない」 등과 같이 표현된다. 또, 위의 표현을 정중체로 표현하면 「本ではないです」 「おいしくないです」 「にぎやかではないです」 「食べないです」과 「本ではありません」 「おいしくありません」 「にぎやかではありません」 「食べません」 등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현대 일본어의 부정표현 중에 정중부정형에는 「ない」을 부가하여 만들 수 있는 「~ないです」뿐 아니라 동사의 연용형에 연결되는 「~ません」이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일본어의 정중부정형에는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의 정중부정형은 표면적인 형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상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런데, 일본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부정표현의 다양성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단순화되거나 부정형 만들기로 편중되거나, 부정표현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루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교육현장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표현의 다양성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능을 토대로 하여 일본어교육과의 연관성을 「~ません」과 「~ないです」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비교

2.1 다노무라(1994)

다노무라(1994)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술어부정형의 용례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용례빈도의 비율, 문체와의 상관관계, 종조사의 유무에 의해 나타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용례총수 8879예 중에 「~ません」은 7295예(82.2%), 「~ないです」은 1584예(17.8%)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속문맥이나 선행문맥과의 상호관계에서도 대동소이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대일본어에서는 「~ません」의 사용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¹⁾ 그러나 다노무라는 후속 요소 중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か」이 연결된 경우, 용례총수 1155예 중에 「~ませんか」은 742예, 「~ないですか」은 1013예라는 반전의 상황을 제시하면서도 왜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2.2 고바야시(2005)

고바야시(2005)는 일상회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중부정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일상회화에서 사용하는 정중부정형을 조사한 데이터에서 얻어진 내용은 용례총수 586예 중에서 「~ません」이 186예(32.2%), 「~ないです」은 397예(67.7%)로 집계되었다.²⁾ 이것은 「~ません」의 사용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된 다노무라(1994)의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보이는 현상³⁾과도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일본어교육과의 관계

이하, 본 절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어의 부정표현이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교재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1 일본어교재 분석 및 문제점

본 항에서는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에 나타나 있는 부정표현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의 초급 일본어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ません」과 「~ないです」로 대변되는 정

-
- 1) 田野村忠温(1994)「丁寧体の述語否定形の選択に関する計量的調査-「~ません」と「~ないです」」『大阪外国語大学論集』第11号 p.56
 - 2) 小林ミナ(2005)「日常会話にあらわれた「~ません」と「~ないです」」『日本語教育』125号 日本語教育学会 p.13
 - 3) 小林ミナ(2005) 전게서 p.10

중부정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3.1.1 일본어 교재 분석

우선 초급 일본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일본어교재의 분포 현황
(o=사용됨 x=사용되지 않음)

		A	B	C	D	E ⁴⁾
명사+だ	~ません	o	o	o	o	o
	~ないです	x	x	x	x	x
い형용사	~ません	x	o	o	o	o
	~ないです	o	x	x	x	o
な형용사	~ません	o	o	o	o	o
	~ないです	x	x	x	x	x
본동사ある ⁵⁾	~ません	o	o	o	o	o
	~ないです	x	x	x	x	x
동사	~ません	o	o	o	o	o
	~ないです	x	x	x	x	x

위 <표1>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명사+だ’와 ‘な형용사’의 부정형은 모든 교재에서 「~ません」이 제시되었다.

둘째, ‘い형용사’는 「~ません」과 「~ないです」을 병행하여 제시한 것과 「~ません」만을 제시한 것, 「~ないです」만을 제시한 것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셋째, ‘ある’가 본동사로 사용될 경우와 모든 동사의 부정형이 모두 「~ません」만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일본어교육에서는 ‘い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ません」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A:『민나노日本語』 B:『초급현대일본어』 C:『즐거운일본어1』 D:『캠퍼스일본어1』 E:『감바레일본어1』
5) 본고에서는 ‘ある’가 본동사로 사용될 경우 독특한 부정형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동사와 구분시켜 조사하였다.

3.1.2 일본어교재의 문제점

위의 표1의 분석 결과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사용의 평형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부분의 교재에는 「~ないです」보다는 「~ません」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주로 문장체표현에서는 「~ません」이 주류를 이루고, 회화체표현에서는 「~ないです」이 주류를 이룬다는 현상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교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캠퍼스일본어』를 비롯한 많은 교재에서 ‘이형용사’의 부정형조차도 「~ません」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ないです」을 배울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급단계의 교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일본어 전공자를 위한 교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否定·肯定의 對立

- いやな顔を見せる - 決していやな顔を見せない。
- あの花は美しい - この花は美しくない。
- この町は静かだ - この町は静かで(は)ない。
- あの人は学生だ - あの人は学生で(は)ない。

「丁寧体」에서는 부정을 나타낼 때 「~せん」을 써서 나타낸다.

-私は犯人ではありません。’6)

한편 위의 경우와 반대측면의 특성을 보이는 『민나노日本語』에서는 ‘이형용사’의 부정형을 오로지 「~ないです」만을 사용⁷⁾하기 때문에 문장형의 이형용사의 부정문이나 ‘격식을 갖춘 정중부정문’⁸⁾을 형성할 경우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부정표현의 다양성이 전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6) 이한섭(1989) 『일어학개설』 한신문화사 pp145-146

7) 본고에서는 『민나노日本語』만을 살펴보았으나 이와 같은 경향을 띠는 교재는 그 밖에 『日本語初歩』 『Japanese for Busy People1』 등도 존재한다.

8) 田野村忠温(1994) 전게서 p.53

부정문에는 부정형을 취하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비록 부정형을 취하기는 하지만, 부정의 의미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는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감바레 일본어』에는 다음과 같이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부정의 의미를 띄지 않는 표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되고 있다.

- (1) a. 私は今日本です。
 b. えっ、もうですか。私はまだシャンハイですが。休みは来週までじゃないですか。(p.57)
- (2) a. 昨日の書類はどこにありますか。
 b. 多分佐藤さんの机の上じゃないですか。(p.127)
- (3) a. 私は土曜日に高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した。それで友達と一緒に朝までお酒を飲みました。
 b. え〜!飲みすぎじゃないですか。(p.173)

앞의 예문의 「休みは来週までじゃないですか」, 「多分佐藤さんの机の上じゃないですか」, 「飲みすぎじゃないですか」등은 상대방에게 옳고 그른 것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나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예문은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처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부정의 형태를 취한 완곡한 긍정 표현이라 할 수 있는 「~じゃないですか」과 같은 부정표현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초급단계에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대학교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노무라는 “외국인을 위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수, 학습상의 배려로 문법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형태를 생략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에 분포되어 있는 정중부정형에 관련된 표현은 단순화하거나 차이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술어의 부정형 만들

9) 田野村忠温(1994) 전제서 p.53

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이하에서는 부정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그에 따른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부정표현의 다양성과 특성

일반적으로 부정표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어떤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표현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부정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또 어떤 것은 부정의 의미와 기능보다는 부정의 형태를 빌어 우회적으로 화자의 생각, 느낌을 전하는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사물의 유무를 나타낼 때에도 부정표현이 사용되는데, 부정표현을 통해 존재와 비존재를 나타낼 경우, 실제적인 존재나 비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존재, 비존재보다는 부족함, 비난 등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화자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부정표현이 사용되는 등 실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표현이 문장체표현과 회화체표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본인의 습관에 의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표현의 성립순서라는 통시적 사실과 그에 근거한 규범적 의식이 존재한다’¹⁰⁾는 다노무라의 견해뿐 아니라, 부정표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적절히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3.2.1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차이점

첫째, 「~ません」보다 「~ないです」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격식을 갖춘 「~では」과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じゃ」이 「~ません」과 「~ないです」중 어느 쪽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가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10) 田野村忠温(1994) 전계서 p.52

이에 대해 다노무라(1994)는 용례총수 2397예 중 「~では」과 「~ません」은 2044예(85.3%), 「~では」과 「~ないです」은 353예(14.7%)를 보인다고 한다. 한편, 「~じゃ」과 「~ません」은 211예(22.4%), 「~じゃ」과 「~ないです」은 733예(77.6%)를 보인다고 한다¹¹⁾.

둘째,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느냐에 따라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が、から」등이 따라올 경우 「~ません」이 우세하여 다노무라의 조사에 의하면 용례총수 5587예 중에서 「~ません」은 5514예, 「~ないです」은 73예에 불과하다고 한다¹²⁾. 그러나, 뒤에 「か、よ、ね」등의 의문사나 종조사가 따라올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즉, 「か」은 「~ません」이 742예, 「~ないです」은 1013예를 보이고, 「よ」은 「~ません」이 162예, 「~ないです」은 216예를 보이며, 「ね」은 「~ません」이 101예, 「~ないです」이 170예를 보인다¹³⁾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의 대화중에 사용되는 부정표현은 「~ないです」의 사용이 「~ません」보다 훨씬 많은 상황¹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정표현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면서도 「~ません」과 「~ないです」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이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위에서도 언급한 부정표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부정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첫째,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 둘째, ‘부정의 의미를 띄지 않고 완곡하게 부정의 주변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1) 田野村忠温(1994) 전게서 p.56

12) 田野村忠温(1994) 전게서 p.56

13) 田野村忠温(1994) 전게서 p.57

14) 小林ミナ(2005) 전게서 p.13

3.2.2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

일반적으로 현재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부정표현은 다음과 같다.

- (4) a. そのビデオは先生のですか。
-いいえ、先生ではありません。(초;p.8)
- b. シャンハイも寒いですか。
-いいえ、あまり寒くないです。(민;p.114)
- c. 高橋さんも野球が好きですか。
-いいえ、野球はあまり好きではありません。(즐;80)
- d. 本もありますか。
-いいえ、本はありません。(캠;46)
- e. ご飯を食べますか。
-いいえ、ご飯を食べません。(감;p.167)

위의 예문에 보이는 부정문은 상대방의 지식이나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표현 중에는 위의 예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의 변화로 인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 (5) a. 今日、めずらしく田中が質問しませんね。
b. 今日、めずらしく田中は質問しませんね。
c. 今日、めずらしく田中が質問はしませんね。

위의 예문은 모두 단문이고, 나타내고자하는 상황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각의 예문이 나타내고자하는 표현 의도는 전혀 다르다. 우선, (5)a.는 술어부분인 「質問しませんね」이 부정의 대상이 되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5)b.와 (5)c.는 각각 「田中」과 「質問」에 조사 「は」이 부가되어 더 이상 술어부분은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b.는 오늘 ‘질문하는 행위’는 실행되었지만, “다나카”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5)c.는 ‘다나카가 다른 행동’은 했으나 “질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처럼 「ない」이 사용된 부정문이 어떤 사실을 부정하거나, 상대가 제시하는 정보나 지식을 정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이를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부정표현이라 규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사(否定辭)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인 “부정의 작용역”과 그 부정문 안에 있는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부정의 타겟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정의 초점”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부정의 의미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작용역”과 “부정의 초점”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양성 또한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부정사와 조사, 부정사와 수량사 등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정문의 정확한 의미해석이 가능해진다.

- (6) a. 太郎は、次郎のように、利口ではありません。
 b. 太郎は、次郎のようには利口ではありません。
 (7) a. ビートルズの曲を全部は演奏しません。
 b. その写真をクラスの全員に見せはしません。

이처럼 부정의 핵심을 나타내는 부정문은 조사의 유무 및 조사의 위치에 따라 부정문의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부정의 주변을 나타내는 표현

부정표현 중에는 「ない」을 수반하고 있지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정을 나타내는 그 어떤 장치도 수반하지 않고 충분히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¹⁵⁾도 있다. 부정사를 수반한 부정문을 부정의 핵심이라 한다면, 그 외의 특성을 보이는 부정표현은 부정의 주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리타(森田)(1995)는 “부정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외의 상황을 널리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긍정상태를 넓게 취할 수 있게 된다.”¹⁶⁾고 하였다.

15) 「まけるもんか、冗談言いなさい、嘘付け」 등의 반어표현을 말하는데,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부정표현 중에서 부정의 주변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8) a. あのう、チリソースはありませんか。
 b. はい。右の奥にスパイス・コーナーがあります。チリソースは下から2番目です。 (민,p.144)

어느 상점에서 점원과 손님이 주고받은 대화중에 사용된 「チリソースはありませんか」라는 부정표현에 대해 「ありますか」이 아니라 「ありませんか」라는 부정형을 써서 물으면 「(チリソースが)없다」이 하는 대답도 고려한 완곡한 질문이 되며, 말하는 사람의 정중한 마음이 전해진다¹⁷⁾고 설명한다.

사물의 유무를 나타내거나, 존재와 비존재를 가늠해야할 경우, 다시 말해서 있느냐, 없느냐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할 경우, “있다”의 부정은 “없다”, “없다”의 부정은 “있다”가 되는 모순 개념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위의 예문처럼 상대방의 대답까지도 고려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ありますか」라는 긍정표현보다는 「ありませんか」라는 부정표현을 사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중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ません」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문에서는 「~ないです」의 문형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9) a. もう時間がないです。急がなくちゃ。
 b. 忙しくてお昼を食べる時間もなかったですよ。

이상의 부정표현의 특성은 결코 전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허락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있다”

16)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225

17) 시사일본어사(2014) 『민나노日本語1』 p.144

의 반대편에 있는 “없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부정표현에는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거나, 필요량에 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10) a. 日本へ来て一年経ったのに、名前もろくに書けないんですね、あなたは。
b. 冷蔵庫にビールが一本しか入れてないんですよ。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긍정형으로 말하기보다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여운이 있는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모리타(1995)의 견해¹⁸⁾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1) a. この度はお礼の申しようもございません。
b. 約束を破っ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

그저 「ありがとう」나 「すまない」과 같이 직선적으로 감사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부정표현을 빌어 우회적으로 표현할 경우 훨씬 더 깊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완곡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다음과 같이 기대나 예상에 반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도 존재한다.

- (12) a. お湯が全然熱くないですね。
b. これ全然冷えてないですよ。
(13) a. このドラマ、結構面白いじゃないですか。
b. あの公園、きれい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

이처럼 부정사 「ない」을 수반하여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부정의 의미를 띄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부정표현의 경우, 어떤 현상이나 느낌을 표현함으로 완곡함이나 부족함, 비난, 기대나 예상에 어긋난 결과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할 뿐 특별히 전제되는 어떤 것을

18) 森田良行(1995) 전게서 p.225

연상시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부정의 기능보다는 그 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표현 중에 일본어 교재에 종종 등장하는 「~じゃないですか」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じゃないです」은 「~じゃありません」「~ではありません」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감바레일본어1』에서는 「「~じゃありません=~じゃないです=~ではないです」¹⁹⁾」로 설명한다. 이처럼 평서문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뒤에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か」을 부가할 경우 「~じゃありませんか」과 「~じゃないですか」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よくありませんか」과 「いいじゃないですか」의 해석은 결코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표현의 경우 초급단계의 교재에 「~ではありません」과 「~じゃないですか」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은 이 두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중부정형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특성과 기능을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별해서 습득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나가기

본고에서는 「~ません」과 「~ないです」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의 정중부정형과 일본어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교재에서는 ‘이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ません」을 기본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데이터로 하여 정중부정형의 실태를 조사한 다노무라(1994)의 조사결과에는 부합하여 일본어의 정중부정형은 「~ません」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신문기사에 사용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문장체표현이기 때문에 기사 안에서 사용된 담화의 인용이나 인터뷰, 좌담회의 기사, 투고 등에서 사용된 회화체라 할지라도 「~ません」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런 현상을

19) 문선희 외(2015) 『감바레 일본어』 동양북스 p.121

정중부정형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지인들 간에 사용되는 회화체 표현에서는 「~ません」보다는 오히려 「~ないです」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것을 고바야시(2005)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다노무라의 통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어 교재 중에는 회화체의 표현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일본어를 습득시키기 위해, い형용사의 정중부정형을 「~ないです」로 국한시키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ないです」의 연장선상에 있는 「~じゃないですか」은 부정표현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할 만큼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의 부정표현은 그 형태만 보아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부정표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형을 취하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형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에서는 부정표현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재를 제공해야한다. 본고에서 지적했듯이 소위 말하는 ‘약간 격식을 갖춘 「~ません」’으로 치우치거나 ‘약간 격의 없는 「~ないです」’²⁰⁾로 치우치지 말고 각각의 표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ません」과 「~ないです」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교재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습자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직도 연구의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일본어의 부정표현에 대한 연구에 더욱더 정진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參考文獻>

- 고정도(2014) 「「맞춤형 일본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시안 — 「이공계일본어」의 경우— 『日本研究』 第37輯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pp.31-50
- 김영민(2012) 「부정의 핵심과 주변에 관한 고찰」 『日本研究』 第33輯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pp.7-26

20) 田野村忠温(1994) 전개서, p.53

- 문선희 외(2015) 『감바레 일본어』 동양북스
 시사일본어사(2014) 『민나노日本語1』
 이한섭(1989) 『일어학개설』 한신문화사 pp.145-146
 太田朗(1980) 『否定の意味』 大修館書店
 加藤泰彦(1988) 「否定の作用域と文法表示」 『上智大学外国語学部紀要』 第23号
 _____(1989) 「否定のスコープ」 『日本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金秀珍(2015) 「反語文における<指示詞の使用>に関する研究—韓・日両国語の対照を中心に—」 『日本研究』 第39輯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pp.7-22
 金英敏(2002) 『日本語の否定文の研究』 韓国外国語大学校大学院
 久野璋(1973) 『日本語文法研究』 大修館書店
 _____(1983) 「否定辞と疑問助詞のスコープ」 『新日本語文法研究』 大修館書店
 工藤真由美(1999) 「現代日本語の文法的否定形式と語彙的否定形式」 『現代日本語研究』 6 大阪大学日本語学講座
 _____(2000a) 「彼は風邪くらいで休まないよ—否定のスコープと焦点」 『月刊言語』 29-11 大修館書店
 _____(2000b) 『時・否定と取り立て』 日本語の文法2 岩波書店
 小林ミナ(2005) 「日常会話にあらわれた「～ません」と「～ないです」」 『日本語教育』 125号 日本語教育学会 pp.9-17
 滝浦真人(2000) 「今月の特集面白くなくない?—肯定と否定のあいだにあるもの」 『月刊言語』 11-29 大修館書店
 田野村忠温(1994) 「丁寧体の述語否定形の選択に関する計量的調査-「～ません」と「～ないです」」 『大阪外国語大学論集』 第11号 pp.51-61
 寺村秀夫(1979) 「ムードの形式と否定」 『英語と日本語と』 くろしお出版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沼田善子(2000) 「塩も入れないと、美味しくならない—とりたて詞と否定」 『月刊言語』 29-11 大修館書店
 縫部義憲(1991) 『日本語教育入門』 創拓社
 水谷信子(1985) 「否定に関する比較」 『話しことばの文法』 くろしお出版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225
 山崎 誠(1990) 「否定の焦点について」 『日本語学』 9-12 明治書院
- <사용한 데이터>
 『女性のことば・職場編』 現代日本語研究会(編)(1999) ひつじ書房
 『男性のことば・職場編』 現代日本語研究会(編)(2002) ひつじ書房
 민: 『민나노日本語』(2014) 시사일본어사
 초: 『初級現代日本語』(2014)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즐: 『즐거운 일본어1』(2010) 다락원
 캠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캠퍼스 일본어1』(2014) 제이앤씨

감: 『감바레일본어1』(2015) 동양북스

접 수 일: 2015년 12월 25일

심사완료: 2016년 1월 22일

게재결정: 2016년 1월 26일

<Abstract>

**A Study of relation between variety of negative expression
and education in Japanese**

: Focusing on "~masen" and "~naidesu"

This study is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polite negative sentence and Japanese education especially regarding to "masen" and "naidesu." Most text books currently used in universities in Korea takes "~masen" form for the basic form of the polite negative sentence in all word classes except "i-adjective." In most cases, the fact that "~masen" form is enough to express the polite negative sentence in Japanese education is prevalent. Tanomura's research of the polite negative sentence with newspaper sources supports that tendency. However, this tendency is not proper because the sentences used in newspaper takes literary style using "~masen" form frequently. In colloquial style, "~naidesu" form is used more dominantly in actual conversation than "~masen" form. Kobayashi (2005) supports this perspective on using the polite negative sentence by contrasting Tanomura's study. Thus, some textbooks which is focusing on the colloquial style for instant using in actual conversation limits "i-adjective" in "~naidesu" form.

Through the study so far, the negative expression has various form in the glance at its form. Like this, the negative expression in Japanese has diverse characteristic. One takes the negative form and meaning at a time, but others have non-negative meaning while these take the negative form. Therefore, in Japanese education, textbooks that reflec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negative forms in realistic and systematic way are needed. Taking proper balance between "~masen" and "~naidesu" is necessary to acquire both expression: "masen," for semi-formal experection and "naidesu," for semi-informal expression.